
광역동치료 기본 원리의 소개와 치료 전 후 성과에 대한 고찰

순천향대학병원 진단방사선과

유지수, 이종권, 신주철, 최덕균, 홍진방

목 적 : 소화기 종양 치료의 기본 원칙인 외과적 수술 이외에 다른 접근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역동 치료의 기본원리의 소개와 그에 따른 환자의 치료 전후의 변화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광역동 치료의 원리와 기본 원칙은 외국에 소개된 소화기 내시경 학회 전문 학술지와 학회지 및 논문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은 과거 본원에서 처음 시행하였을 때부터 현재까지 (2001년 03월 ~ 2003년 07월) 시술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전 후 치료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.

결 과 : 광역동 치료는 포르피린 계통의 광과민성 물질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 오랫동안 축적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광과민성 물질을 정맥주사한 후 암세포에 축적되면 약 48시간 후 암세포에 내시경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쬐이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킨다. 이후 조영제를 이용하는 투시촬영과 담관내 초음파, 그리고 내시경을 통하여 그 치료 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. 광역동 치료는 외과적 수술에 비해 장천공, 출혈 등의 위험과 부작용이 적고, 환자에게 좀 더 편안한 시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외과적 수술의 어려움과 조기 종양의 선택적 치료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.

본원 환자의 치료 전후 성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광역동 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치료 후 337일 (생존 범위 53일~436일)이 연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.

결론 및 고찰 : 기존의 치료법에 비해 광역동 치료는 선택적인 종양조직의 파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으며 환자적인 측면과 시술자의 측면에서 환자의 종양치료시 기존의 외과적인 수술과는 달리 부작용이 적다는 점과 생존기간의 연장 및 해부학적구조에 따른 외과적 수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연구 보완한다면 선택적인 소화기 종양의 치료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한다.